

### ◇중증 폐기종 환자에서의 폐용적감축술

진웅, 이선희, 김시훈, 조규도, 박재길, 왕영필, 광문섭, 김세화

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

**배경 및 목적 :** 최근 들어 폐용적감축술은 중증 폐기종환자의 외과적 치료술식으로 폐장이식의 전단계 혹은 대치술로 이용되고 있다. 또 폐용적감축술이 사용되면서, 초기 폐암을 동반하는 폐기종 환자의 경우 불량한 폐기능에도 불구하고 폐암 절제술을 시행할수 있게 되어 폐기종의 치료뿐 아니라 초기 폐암의 치료에도 큰 의의를 갖는다고 하겠다. 이에 저자들은 폐용적감축술을 시행 받았던 환자들을 고찰하여 그 성적을 보고하는 바이다.

**방법 :** 1996년 7월부터 1997년 6월까지 수술 전 초기폐암이 의심된 2예를 포함하여 7예의 중증 폐기종환자를 폐용적감축술을 이용하여 치료하였다. 수술 전 검사는 단순흉부촬영, 폐관류와 폐환기검사, 폐 기능검사, 동맥혈 가스검사, 6분 도보검사등을 시행하였다. 또 모든 환자에서 수술전 호흡곤란정도를 MMRS[Modified Medical Research Scale]에 따라 분류하여 수술후 비교 하도록 하였다. 수술은 7예 모두 정중흉골절개를 시행 후 양측 폐에서 폐기종부분을 소심막등으로 보강한 자동봉합기를 이용하여 썬기절제하였다. 술후 검사는 수술 후 3개월, 6개월, 1년, 2년에 단순흉부촬영, 폐 기능검사, 동맥혈 가스검사, 6분 도보검사등을 시행하였다.

**결과 :** 폐기능검사와 동맥혈 가스검사, 단순흉부촬영은 수술후 3-6개월에 가장 호전된 양상을 보였으며 평균 21개월의 추적관찰중인 현재까지 호전된 양상을 유지하고 있다. 환자의 호흡곤란정도를 평가했던 MMRS는 수술전 3.7에 비하여 수술후 1.86으로 호전된 양상을 보였다. 수술 전 폐암이 의심되었던 2예중 1예는 소세포암으로 진단되어 항암요법을 5차례 시행하였으며, 나머지 1예는 1기 평편상피세포암으로 진단되어 추가적인 치료는 시행하지 않았다. 2예 모두 현재까지 양호하게 지내고 있다. 수술전 폐암을 의심하지 못했던 1예에서 수술 후 13개월에 뇌전이를 동반한 폐암이 발견된 후 사망하였다.

**결론 :** 폐용적 감축술은 약물 및 보존적인 치료로 생활이 어려운 심한 폐기종환자에서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술방법으로 생각된다. 특히 초기폐암을 동반하는 폐기종환자의 경우에는 불량한 폐기능이 수술금기가 되지 않고 중앙절제술과 동시에 폐용적감축술을 시행하여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.

책임저자:진웅(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) 발표자:진웅(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학교실)